山寺서 얻은 삶 의욕… "난 살아야 해!"

[스토리텔링] 불교상담개발원 자살예방 템플스테이

삶의 끝자락서 만난 상담
고즈넉함 · 여유로운 정취와
유경험자들의 무한 지지에
자살 생각했던 과거 벗어나



그림 · 강병호

20대 · 무직 · 백조 · 소외감….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는데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다. 한강다리 위를 몇 번이나 찾아갔는지 셀 수도 없다.

'맏이인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나만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까? 우울한 걸 스스로 알면 우울한 게 아닌가?'

답 없는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렇게 더 살아서 뭐하나 이제 그만 끝내야겠구나' 생각하며 컴퓨터 앞에 턱을 괴고 앉아있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글 하나를 봤다. 자살예방 템플스테이 '마음 돌아보기, 어루만지기'. 불교상담개발원이란 이름이 눈에 띄었다. 딱히 절에 다녀본 적은 없는데….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신청했다.

세상이 녹아내릴 것만 같은 폭염을 뚫고 가평 백련사라는 절에 도착했다. 아늑했다.

'절이 원래 이렇게 편안했나?'

같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부분 부모님과 비슷하거나 연배가 조금 더 높은 어르신들이었다. 이분들도 사는 게 힘들어 오셨겠지…. 각자 별칭을 짓고 자기소개를 했다. 소개를 마치고 기억에 남는 별칭을 꼽을 때 몇몇 분들이 내 얘기를 했다. 공감이 간다고, 나도 그랬다고.

해질 무렵 108배를 했다. 근데 명칭이 나를 깨우는 108배다. 나는 지금 잠들어 있는 걸까. 번민에 휩싸인 채 절을 했다. 잔잔한 음악과 묵직한 내레이션이 마음에 와 닿았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아야하는지 몰랐는데 정작 절하는 동안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개운했다.

이튿날엔 기다란 잣숲길을 걸었다. 중간에는 다 같이 평상에 누워 명상을 체험했다. 번잡한 도심을 떠나 조용한 산속에서 여유를 느껴본 적이 없어서일까.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자연이 속삭이는 듯했다.

이곳에서 함께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많은 어르신들은 막내인 나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내주셨다. 우리집에서는 내가 맏이였는데…. "산전수전 다 겪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어린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겠느냐"는 얘기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저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 한 어머님께서 다가와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였다. 그래, 어쩌면 나는 울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울어버리면 정말로 주저앉을까 무서워 꾹꾹 참아왔다. 비워내야 다시 채울 수 있음에도 비우지 못해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무게에 깔려버린 게다.

감사한 마음에 어르신들과 연락처를 교환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도 샘솟았다. 그까짓 세상 다시 한번 부닥쳐보자고 다짐했다. 템플스테이를 오기 전 이게 마지막이라고 마음먹었던 것은 그런 생각이 마지막인 것으로 변했다. 백련사를 떠나며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졌다. '오길 참 잘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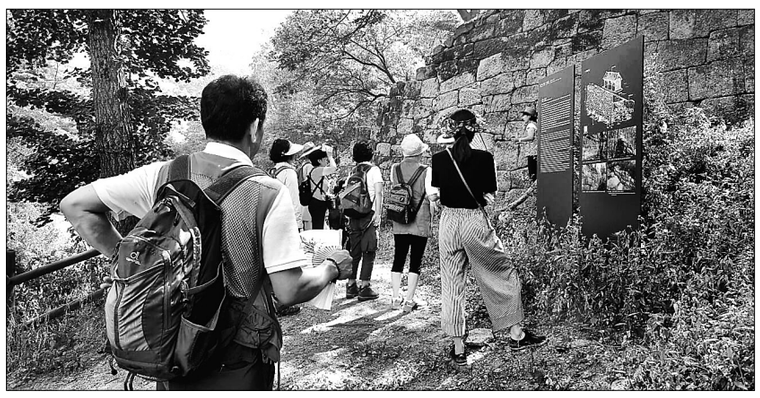
그리곤 한강다리 위에 서 있던 과거의 내가 떠올랐다. 그 너석에게 마음속으로 외쳤다. "난 살아야 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이 기사는 8월 20~21일 가평 백련사에서 열린 불교상담개발원 자살예방 템플스테이를 사후 취재해 1인칭 시점으로 재구성했다.

역사 · 숲해설, 템플스테이로 '한 번에'

북한산 중흥사, 9~12월 역사 · 숲해설 템플스테이



8월 13일, 중흥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북한산성 성벽 앞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북한산성 내 유일한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중흥사가 북한산의 역사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기획했다.

중흥사(주지 지홍)는 산을 찾기 좋은 9월부터 12월초까지 '역사해설과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와 '숲해설이 있는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각각 경기문화재단 문화관광해설사와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의 해설이 곁들여진다. 모두 당일 프로그램으로 서울 근교라는 장점을 살려 가족들이 쉽게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템플스테이는 오전 문화관광 · 자연환경해설사 안내에 따라 계곡길을 걸으며 시작된다. 북한동역사관서 중흥사로 이동하며 북한산 풍광을 감상하고, 우산각 · 산영루를 지나 중흥사에 도착한다. 점심은 발우공양이 진행되며 오후에 와선 · 스님과의 차담 · 소감문 작성 등이 이뤄진다.

중흥사 측은 "북한산은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음에도 등반객들이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다. 칠유암 같은 경우에도 모르고 보면 너럭바위에 불과하지만 알고 보면 조상의 여유와 낭만이 담긴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템플스테이는 짧은 답사가 아닌 3시간에 걸친 명상여행이기도 하다.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템플스테이에는 신앙을 강요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누구나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희망자는 중흥사 홈페이지(jhs.or.kr)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메일(dongmyong@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02)355-4488

한편, 중흥사는 북한산성 입구서 도보로 1시간 소요된다. 가는 길에 북한산을 둘러싸고 있는 산성과 중간에 축조한 중성, 시체를 옮겼던 시구문 등을 볼 수 있다. 또 고려시대 재상 민지(閔漬)가 여섯 벗들과 놀았다는 칠유암, 경치가 빼어난 곳에 있는 산영루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윤호섭 기자

2016 조계종 포교자격 응시자 총 726명 합격

2016년도 조계종 포교자격 응시자 중 총 726명이 합격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8월 18일 제3차 포교원 회의를 통해 2016년도 종단포교자격 응시자 중 최종 합격자를 심의 의결해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포교원에 따르면 제21회 일반포교사는 2월 20일 실시한 필기고사 합격 대상자 675명 중 2차 평가인 지역활동 · 봉사활동 · 팀활동을 거쳐 최종 578명이 합격했다.

제10회 전문포교사는 137명이 신행분야 및 전문분야 면접위원으로부터 심층평가를 받아 129명이 합격했다. 아울러 제21회 국제포교사는 19명이 선발돼 외국인 템플스테이 지원 및 국제포교 통번역 분야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포교원은 이번 종단포교자격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9월 24~25일 제5교구본사 법주사서 품수식 및 팔재계 수계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윤호섭 기자

"불교 사회공헌, 신도들이 이끈다"

중앙신도회, 행복바라미 워크숍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8월 20~21일 대전시 K-WATER교육원서 '2016 행복바라미 워크숍'을 개최했다.

100일간에 걸쳐 전국 300개 사찰을 순례하며, 지역불교계 현안을 돌아본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전국신도 교류와 결집의 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서 신도들은 불교계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8월 20~21일 대전시 K-WATER교육원서 '2016 행복바라미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4년째를 맞았지만 올해는 전국 사찰순례에 대한 성과보고와 신도결집이라는 취지 아래 의미를 더했다.

워크숍에서 이기흥 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인 중도와 중용, 관용과 포용 사상을 실천해 양극화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현상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면서 "신도회가 추진하는 행복바라미 운동이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불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행복바라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행복바라미운동은 2013년부터 시작된 불교계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2014년 1억1165만원, 2015년 1억7106만원을 모금해 지역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전달했으며 올해는 현재 2억 원 가까이 모연했다. 중앙신도회는 매년 늘어가는 모금액을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사찰 의견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총무원에 전달하는 한편, 행복바라미 모금함 300개를 지역사찰에 비치할 계획이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법문서 "중앙신도회의 전국사찰 순례가 종단 최초의 일"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워크숍은 이외에 △SNS나눔문화캠페인 활용방안(윤쟁 SNS대변인) △행복바라미 특강 △단체별 나눔토론 △교구신도회 임원 간담회 △현암사 답사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정종섭 체육인불자연합회 고문, 유민봉 前 청와대불자회장, 권선택 대전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내 손으로 한 생명 살릴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직원들이 직접 응급조치법을 배우러 나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8월 23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6층 프로그램실서 '기초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재단 직원 20여명은 약 3시간 진행된 교육서 붕대처치법,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배우며 응급상황 대처법을 숙지했다. **박아름 기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6년 8월 10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6년 9월 6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서무산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 운영 행정 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천도재 의식 및 권공의식
◇원서교부 : 2016년 8월 10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6년 9월 1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2016년 불교학과 49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 불교학과 [9월 3일(토) 오후 5시 개강]

▶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 CD배송

학 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과 목	1. 근본불교 2. 반야심경 3. 유식불교	4. 대승불교와 천수경 5. 아미타경과 정토 6. 화엄경	7. 부처님생애와 인도불교 8. 중국 · 한국불교 9. 법화경	10. 불교의 체계적 이해 11. 불교문화 12. 선불교
교수진	법산스님(본대학장)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주명철교수 정성준교수 종석스님 정엄스님 황순일교수 김경집교수 박종교수 차차석교수 이미령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활안스님 김호귀교수 정병조교수			

■ 모집인원(불교학과) | 120명 (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6년 8월 1일 부터 ■ 문 의 | 02)732-1206 ~ 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 선 · 명상학과 (2년과정) 개강 [9월 8일(목)] ✲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 개강 [9월 8일(목)]
✲ 불교다도학과 (2년과정) 개강 [9월 6일(화)] ✲ 불교대학원 (3년과정) 개강 [9월 6일(화)] 삼국유사, 마하왁가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사무처 : (우) 0315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 732-1206~8, FAX 02) 732-1207 www.dongsanbud.net